

'미술관에 온 한복 Dialogue, 상춘곡'

남원시, 한복문화주간 맞아 김병중미술관서 기획 전시

남원시는 2021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매우 의미 있는 한복 기획전으로, 최근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김병중미술관에서 지난 9일부터 '미술관에 온 한복 Dialogue, 상춘곡(賞春曲)' 기획 전시를 3개월 동안 개최한다.

이번 한복 전시는 한복이 중국문화라는 역지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복의 전통성과 아름다

움을 널리 알리는 의미 있는 기획전으로, 남원 출신 김병중 화백과 박연옥의 그림, 김혜순 한복 명장의 꽃빛을 담은 한복이 남원 출신 조선시대 여류문인 김삼의당의 춘경(春景)의 시구와 함께 빛어내는 특별한 콜라보로 한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조명하는 첫 사례이다.

남원시는 가장 한국적인 관광자원이 지속가능한 남원의 미래라는 일념으로 지난 2011년도

의식주(衣食住)의 명품도시로의 행보로, 2011년 1단계 주(住)에 명품한옥 '남원예촌'을 조성 운영중에 있으며, 2019년 2단계 한복전문체험관 화인당(花人堂)을 조성해 오는 4월 17일 개관을 앞두고 있다.

화인당은 광한투원과 남원예촌을 배경으로 한복과 함께 한 쪽의 그림이 되고 싶은 관광객의 니즈를 반영한 한복거점 공간으로 시는 개관에 맞춰 대표관광지 광한투원을 찾는 한복 착용 관광객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입장료를 전면 면제한다.

이 같은 남원시의 한복거점 도시로의 노력은 지난해 국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020 한복문화활성화 공모사업'으로 가속도를 더하고 있는 등 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복문화활성화 공모사업 3개 분야(한복문화주간, 한복지역거점, 한복문화교육)에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남원시는 이번 미술관 기획 전시를 시작으로, 한복문화주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4월 1일부터는 남원의 기록을 모아둔 남원다움관에서 한복과 관련한 추억을 소환하는 한복아카이브전과 4월 16일부터 18일까지는 김병중미술관에서 특별이벤트 공연과 화인당의 개관에 맞춰 오감체험형 공연문화와 접목한 한복시청회(韓服視聽會), 한복 패션쇼 광한정인(廣寒情人), 거리퍼레이드(70여명) 등 시가지 곳곳에서 한복문화도시를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으로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620-5660)로 확인하면 된다.

양인환 관광과장은 "이번 남원시가 펼치는 한복문화주간행사 및 한복의 고운빛깔이 오롯이 담긴 명품한옥에 이어 남원민의 지역성이 담긴 한복문화 형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후 기자



남원시는 2021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매우 의미 있는 한복 기획전으로, 최근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김병중미술관에서 지난 9일부터 '미술관에 온 한복 Dialogue, 상춘곡(賞春曲)' 기획 전시를 3개월 동안 개최한다.

'자연친화, 생명 존중의 발로'

'어느 여름날' 오병기 시인, 창작문학상 본상 수상



오병기 시인(사인)이 제22회 한국창작문학상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오 시인의 독창적인 창작기법을 높이 평가해 김종삼 심사위원장(시인·아동문학가) 등 심사위원 전원 합의하에 그의 작품을 본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그의 시 세계는 풍부한 시적 감성을 기반으로 해 자연을 노래하고 있으며, 그 자연물을 바라보는 헤안은 순수성과 서정성을 겸하면서 섬세하면서도 예리한 독창성이 돋보인다. 특히, 자연친화적인 시적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오병기 시인이 추구하는 예술세계라 할 수 있다.

또한 오 시인의 자연친화는 생명존중의 발로이며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상이다.

'어느 여름날'에서는 섬진강가의 꽃과 나무를 시인의 가슴으로 품는 정취를 표현하면서 자신도 별빛이 돼 환상의 세계

를 찾아가고 있다. '산길'에서는 그 길을 걸으며 계절의 순환을 의식하고 온갖 꽃들의 소리는 시인의 가슴에 종교적으로 승화돼 들리고 있다.

이처럼 오병기 시인의 시편들은 순수성을 바탕으로 한 자연친화사상과 생명존중사상이라는 두 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김병렬 심사위원(시인·문학평론가)은 "전 세계가 코로나로 한 해를 보내고 새로 봄을 맞이했다"며, "올해는 코로나가 물러가서 우리 모두가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 간사는 "이번 '한국창작문학' 본상은 제22회의 제호로 상재하게 됐다"며 "이번에 대상을 수상한 오병기 선생님, 본상을 수상한 오병기 선생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한편 오병기 시인은 한국미술협회 중진 화가로서 국내 각종 미술행사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년 여를 제간 중합문예지 '한국창작문학'의 표지화를 제 고향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본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문화예술로 고창군민 마음에 활력소를"

군,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3분야 공모 선정

'문예회관 공연콘텐츠 공동제작' · '기획·제작·공연' · '기획·제작·전시'

고창군이 '2021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문예회관 공연콘텐츠 공동제작', '기획·제작·공연', '기획·제작·전시' 등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은 지역 간 문화적 격차를 줄이고, 문화예술회관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사업이다.

먼저, 고창문화의전당,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부안예술회관과 함께 전북지역 내 예술단체 등과 협력해 '태권유랑단, 녹두'를 응모, 선정돼 국비 1억3000만원을 확보했다.

'태권유랑단, 녹두'는 1894년 조선시대로 간 태권유랑단이 동학농민혁명의 발생지 고창을 시작으로, 부안, 전주로 이동하며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이해하고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담은 역사 판타지극이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고창문화의전당, 부안 예술회관에서 11월에 총 6차례에 걸쳐 선보일 예정이다.

이탈리아 가곡과 독일가곡을 선보이는 '예술

가곡의 밤'이 선정됐다.

이는 지난해 '모든 공간은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기획의도로 진행한 로비음악회 가곡 시리즈 '한국가곡' 편에 이은 2번째 시리즈다.

고창문화의전당 서영길 공연·전시기획 담당자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가곡음악회 이자, 문턱을 낮춘 로비음악회로 우수한 공연 예술 콘텐츠를 제공해 가곡이 울려 퍼지는 고창, 고창으로 만들기 위해 기획했다"고 밝혔다.

또한, 'Hi, 청년을 보다! High, 고창을 잇다!'를 주제로 고창출신 청년작가 기획전(작가 이재문, 박철중, 조진규)이 선정됐다.

재료, 장르, 기법 등에 구애받지 않고 개성과 창의성이 담긴 지역출신 청년작가들의 독창적인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연합전을 10월에 마련할 예정이다.

고창군 문화예술과 백재욱 과장은 "올해도 다양한 문화예술공연과 전시를 통해 코로나19에 지친 군민들의 마음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동의보감·자산어보,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국립중앙도서관, 과학기술사3-2호·과학기술사-7호

허준이 지은 '동의보감'과 정약전이 쓴 '자산어보'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가 됐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일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동의보감 25책과 자산어보 1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주관하는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과학기술사3-2호와 과학기술사-7호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동의보감은 선조의 명을 받은 허준이 우리나라와 중국 등 동아시아의 의서 200여종을 집대성해 1610년에 편찬한 자료다.

병의 치료에만 그치지 않고 예방과 건강도 모까지 다룬 혁신적인 종합 의학서다. 의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우리나라, 중국, 일본에서 다양한 판본으로 간행되는 등 국제 의학서로 명성이 높다.

이번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된 동의보

감은 1614년 초기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것이 특징이다. 당시 오대산사고에 보존된 내사본(內賜本)으로, 이용되지 않은 영구 보존용이었기 때문에 현재 보이도 감탄할 정도로 최상의 보존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2009년 7월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고 2015년에 보물 제1085-1호에서 국보 제319-1호로 승격됐다. 올해는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도 등록됐다.

자산어보는 귀향 가 있던 정약전이 흑산도 연해 어류를 조사해 1814년 정리한 책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어류 백과사전이다.

1권은 비늘이 있는 물고기인 인류(鱗類), 2권은 비늘 없는 물고기인 무인류(無鱗類)와 겹질이 딱딱한 바다 생물인 개류(介類), 3권은 이밖의 바다 생물인 잡류(雜類)로 나뉘었다. 어



동의보감·자산어보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됐다. 등록패를 정리하는 국립중앙도서관 학예연구사. (사진=국립중앙도서관 제공)

류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이해하려는 과학적 사고가 잘 담겨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동의보감'과 '자산어보'의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을 계기로 과학기술사적 가치가 높은 소장 고문헌은 발굴해 세상에 알리는 일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뉴시스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 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jjctv 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